

# 忠清北道教育委員會會議錄

(第5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 목 차

1. 제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개회식..... 3

2. 제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6

3. 부 록

가. 의사일정(안)..... 12



제 5 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본 회 의 회 의 록 ( 개 회 식 )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담당관실

1991년 12월 4일 (수요일) 14시 00분

제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개회식순

1. 개 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애국가 제창
4.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에 대한 묵념
5. 개회사
6. 폐 식

(사회 : 의사과장 이영규)

(14시 개식)

○ 의사과장 이영규 : 지금부터 제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 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기에 대한 경례  
(녹음 주악과 함께 국기에 대한 맹세)

. 바 토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된 전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음 전주에 따라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 묵 념  
(녹음 주악)

. 바 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도교육위원회 김영세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 오늘 전국 초유의 민선 교육감을 선출하는 뜻 깊은 이 자리에 큰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여 주신 전국 각시·도에서 왕림하신 교육위원님, 그리고 내빈 여러분 또 언론계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님!

오늘 이 자리는 본도 제8대 교육감을 선출하기 위하여 모인 자리입니다.

특히 오늘 교육감 선출은 교육자치가 시작된 후 우리도에서 최초로 선출되는 민선 교육감 이라는 데 큰 의의가 있으며, 더구나 전국에서도 맨 처음 실시되는 민선 교육감 이라는 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육자치법이 실시된 후 본도 초유의 민선 교육위원으로 선출된 바 있고, 법이 정한 테두리에서 우리 고장 충청북도의 교육에 관한 정책을 맡게 되었으며, 지난 9월 2일 본도 교육위원회가 개원된 이래 150만 도민의 열망을 한 곳에 모아 대의기구로서의 맡은 바 소임을 열정적으로 힘써 왔습니다.

국가의 발전과 조국의 평화통일, 그리고 자아실현을 통한 개인의 완성을 위해서는 인간개발이 대전제되는 것이며 인간의 개발은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위원은 교육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 교장의 학교 현장에 산적인 문제들을 바르게 하나 하나 풀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님!

이번에 선출되는 교육감은 그동안 선출 절차의 해석상의 문제점을 우리 교육위원들의 의견 결집으로 합법적인 최선의 방법을 도출하여 오늘 그 선출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의 회의는 전 도민의 기대를 모아 뜻깊게 지켜보는 자리인 동시에 전국 초유의 민선 교육감 선출이란 점에서 타 시·도 교육위원께서도 관심깊게 바라보고 있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위원들은 지역주민과 교육계의 의견 수렴, 그리고 우리 교육위원의 상호의견 교환으로 적임자를 선출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하여 왔고 수차의 간담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 교육위원은 그간의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진실로 몸바쳐 일할 수 있는 훌륭한 적임자를 본도의 새 교육감으로 선출하시어 도민의 높은 기대에 기필코 보답하여야만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연·학연·혈연이 있을 수 없고 사사로운 정의에 끌릴 수 없으며 오직 높은 학식과 덕망 그리고 고매한 인격으로 우리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교육계의 대표를 선출하여 주셔야

만 하겠습니까.

존경하는 교육위원 동지들께서도 이번 새 교육감의 선출에 있어서 우러러 하늘에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고, 150만 도민 누구에게나 이번의 선출은 참으로 멋졌었다고 자랑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행사하시어 전국적으로 깨끗한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종여일하게 본 회의가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다시한번 간곡한 말씀으로 당부드리면서 개회사로 가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12월 4일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세

○ 의사과장 이영규 :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본회의가 시작 되겠습니다.

(14시 08분 폐식)

본 회 의 회 의 록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담당관실

1991년 12월 4일 (수요일) 14시 08분

의 사 일 정(제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1. 회기결정의 건
- 2. 충청북도 교육감 선출에 관한 건

부 의 된 안 건

- 1. 경과보고(의사과장)
- 2. 회기결정의 건
- 3. 충청북도교육감 선출에 관한 건(권혁중위원의 3인 제안)
- 4. 교육감(정인영) 당선인사

(14시 08분 개의)

○ 의장 김영세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과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4시 09분)

- 1. 경과보고

○ 의사과장 이영규 :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의는 유성종 교육감의 일신상 형편에 의한 사임으로 후임교육감을 선출키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지난 11월 16일 유성종 교육감의 사표 제출이 있었고, 11월 22일 정부 발령에 따라 퇴직 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먼저, 제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신 후, 지방교육자치제 시행이후 전국 처음으로 임기 4년의 민선 교육감을 선출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제5회 교육위원회 임시회는 지방 교육자치예관한법률 제15조 제1항의 규정예 따라 권혁중위원님 외 세분 위원님이 집회를 요구하시어, '91년 11월 26일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공고 제7호로 집회공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10분)

## 2. 회기결정의 건

○ 의장 김영세 :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제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미 유인물로 배포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이번 회기는 12월 4일, 1일간으로 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회기는 '91년 12월 4일, 1일간으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1분)

## 3. 충청북도교육감 선출에 관한 건

○ 의장 김영세 :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선출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감 선출은 교육자치예관한법률 제28조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 교육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도록 되어 있고,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는 제2차 투표로 하고, 제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다수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재반해석과 절차는 사전 간담회를 통한 교육위원 전원의 합의 사항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내용을 참고하여 투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응복, 이근수위원 이상 두분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 석으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석으로 이동)

○ 의장 김영세 : 다음은 투표 방법에 대

하여 의사과장으로 부터 설명이 있겠습니까.

의사과장은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과장 이영규 :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해 드리는 순서는 앉아 계신 의석을 기준으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교육위원님께서서는 직원석에서 준비요원으로 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전면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 공란에 교육감으로 선출하실 본인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신 후에 나오셔서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명이인등의 구별을 위하여 현직 또는 전직을 성명과 병기하여 기록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비요원은 앞에 놓여 있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명패함과 투표함 점검)

이제 호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수위원님, 이상일위원님, 이재희위원님, 홍신희위원님, 김사수위원님, 박경해위원님, 권혁풍위원님, 장충호위원님, 김응복위원님, 이근수위원님, 준비요원은 의장님께 명패와 투표용지를 갖다 드리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세 투표완료 후)

○ 의장 김영세 : 어떻게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하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의원석 침묵)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 김응복 위원 : 감표위원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한분이 명패와 투표용지를 한곳에 같이 넣었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을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다시 넣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이 명패함에 있던 투표용지 1매를 투표함에 투입하고 명패수 계산)

○ 의장 김영세 : 지금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11매로 출석위원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부표함 열고 부표수 계산)

부표수도 열한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부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후)

부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부표수 11표중 정인영후보 7표, 이상록 후보 2표, 남광현후보 2표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적위원 과반수를 획득한 정인영님이 충청북도 교육감으로 당선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감표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국에서는 지체없이 교육감 당선 승낙서를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잠시후 의사국장이 당선승낙서를 받아 의장에게 전달)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8대 충청북도교육감으로 정인영님을 선출하였습니다.

정인영 교육감 당선자께서는 평소 우리 교육가족에게 널리 알려져 있으시고, 교육계에서도 신망이 두터우시며, 교육의 이론과 행정에도 밝으신 분으로, 앞으로의 충북 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서의 충청북도 교육감 선출은 지방교육자치가 실시된 이래 전국 처음의 민선 교육감을 탄생시킨 것으로 명실상부하게 지방교육자치가 터잡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육위원님 모두 감개무량함을 느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인영 교육감 당선자로 부터 당선 승낙서를 접수했습니다.

그러면 제8대 충청북도교육감으로 당선 되신 정인영님께서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정인영 교육감 사회대 등단, 일동박수)

(14시 40분)

4. 교육감(정인영) 당선인사

○ 교육감 정인영 : 존경하는 김영세의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머리끝 깊이 숙여서 감사의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민선 교육감으로 선출되어서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영광은 단순히 정인영이 개인의 영광이라기 보다는 민주교육행정을 바라는 교육가족의 모두의 승리요 모두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은 교육민주행정이라는 것은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요 교육사업을 계획할 때에 이 업무를 관련짓는 모든 여러분들과 깊이 있게, 신중하게 상의를 해서 안이 결정되며는 다시 여러 교육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할 것이고, 이렇게 일단 결정된 여러 주요사업들은 강력하게 추진을 함으로써 그 교육사업의 성과가 극대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교육사업의 집행은 이 교육감이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선 학교에 있는 모든 교원들이, 또 우리 직원들이 힘을 합해서 일을 집행하여야만 되리라고 믿습니다.

교육감 하나의 힘은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가족 모두의 힘이 하나로 집결되며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의 원천이 거기에서 발생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정한 인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즉, 적재적소의 원칙, 성실하고 근면한 교원을 우대하는 풍토, 이와 같은 것들이 조성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보다 의욕적으로, 보다 책임적으로, 보다 창의성을 발휘해서 그 일을 수행하며는 결과는 좋은 결실을 얻으리라 확신을 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저에게 걸어 주신 기대를 어긋

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저에게 또는 민주교육행정을 바라고 있는 온 교육가족들에게 안겨주신 영광을 다시 한번 고개 숙여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 의장 김영세 : 정인영 교육감 당선자로 부터 당선 인사를 받았습니다.

이제 제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함에 앞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기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위원님 두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홍신희, 장충호위원님 이렇게 두분을 선출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 없으시죠?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신희, 장충호, 두분 위원님이 제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분 교육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p>감사합니다.</p> <p>이상으로 제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br/>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합니다.</p> <p>(외사봉 3타)</p> | <p>이상으로 제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br/>회 본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p> <p>(외사봉 3타)</p> <p>(14시 45분 폐회)</p> |
|--|---|

|  |
|--|
| <p>○ 출석위원수 : 11명</p> <p>의장 김영세, 부의장 김광수, 위원 이상일, 이재희, 홍신희, 김응복,<br/>이근수, 김사수, 박병해, 권혁풍, 장충호</p> <p>○ 의사일정(안) : 별첨 1.</p> |
|--|

(별첨 1)

## 議 事 日 程(案)

第 5 回 忠淸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1991. 12. 4(1일간)

| 日 時                          | 附 議 案 件   | 備 考                     |
|------------------------------|---|-------------------------|
| 12. 4(수)<br>14:00<br>(1차본회의) | ※ 개 회<br><br>1. 제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br><br>2. 제8대 충청북도교육감선출의 건<br><br>※ 폐 회 | 회기: 12. 4.<br><br>(1일간) |